

Adieu~ 2015!

청양의 해, 이런 일이 있었지요

고객홍보팀

돼지고기이력제와 함께 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015년은 새로운 사업과 함께 한 첫 발이 암시하듯 다양한 시도 속에 연중 강한 변화의 기운이 원 안팎을 물들였다. 지난 1월, 등급정보 365+ 신년사를 통해 “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기원의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축산도 축산이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부터가 변화의 기조 속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 해를 보냈다.

상전벽해라 해도 좋을 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 확 변한 것은 물론 내부의 조용하지만 강한 웅트립까지. 다이내믹했다고 할 만큼 일이 많았던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의 2015년을 되짚어본다.

공정

2015년 4월 2일, 축평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한 기관 운영을 위한 윤리경영 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서 노사 대표들은 청렴·윤리 경영을 위한 핵심 과제 실천 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노사 대표들은 이날 “2015년도 기관 청렴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각각 1등급을 목표로 핵심 과제에 대한 책임 있는 공동 이행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10.8.)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 축평원 임직원들은 지난 1년

다양한 노력을 했다. 반부패청렴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청탁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매년 이어온 청렴마일리지 관리는 명함을 내밀기도 어려울 정도로 평소 청렴한 업무처리를 생활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2015년 축평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위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다. 종합 청렴도 8.85점, 2014년 평가 결과에 비해 0.77점 상승한 수치다. 또한 이는 공직유관단체 전체기관 평균 7.89점에 비하면 0.96점이 높고, Ⅲ유형 평균 8.28점 보다 0.57점 높은 점수다.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 최우수기관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축평원의 2016년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성



꽃피는봄, 축평원에 기쁜소식이 찾아왔다. 전국축산물 품질평가대상의 최고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축평원의 전문성을 살려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생산 농가를 선정·시상하는 이 행사의 의미가 높이 평가된 것인데, 덕분에 13회를 맞은 2015년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치러졌다.

그리고 2015년 축평원에서 새롭게 태동한 사업이 있다. 가금산물 산지가격 조사체계 구축과 축산물거래 증명 일원화 서비스가 그 주인공이다.



축산물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 홈페이지

먼저 가금산물 산지가격 조사체계 구축 사업은 가금산물 산지가격 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격조사 대상 표본 확대와 객관적인 가격조사를 통한 통계적 분석, 실 거래가격 발표 등으로 가금산물 산지가격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향후 가금산물 가격조사체계 구축을 통해 전일 거래 상황을 수집해 발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은 가격조사 및 발표로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축산물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는 축산물 이력정보와 등급정보, 혈통정보, HACCP 정보, G마크인증 등 축산 관련 품질·인증·유통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 기관별로 찾아 헤매지 않고 축산물 이력정보, 등급정보, HACCP인증정보, G마크정보, 품질공정업체 정보, 혈통정보 등을 한 번의 축산 정보 조회 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3.0 우수사례로 꼽히고, 언론매체에서도 집중 보도할 만큼 관심몰이 중이다.

올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국제교류의 폭을 넓혔다.



필리핀 특화연수(10.20.)

대표적인 것이 필리핀. 농업해양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전략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5월 본원과 김해축산물공판장 이력제 현장 등에서 설명회를 한 차례 실시했다.

그리고 또 한 번 10월 필리핀 고위 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 향상 및 이력제 특화' 국제협력 연수를 실시했다. 당시 필리핀 연수단 단장 조나단 버가라 사비니아노(Jonathan Vergara Sabiniano) 필리핀 국립식육검사소 기획정보관리본부장은 "이번 연수는 필리핀 공무원들이 선진화된 한국의 축산물품질평가와 이력제를 습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몽골 축산물이력제 역량 강화 연수(4.3.)

몽골 역시 축평원과의 교류에 적극적이었다. 몽골은 제6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의 의제로 '축평원의 국내초청 연수과정'이 채택되어 성사됨에 따라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됐다.



르완다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축평원 방문(6.25.)

그리고 축평원의 전문성에 높은 관심을 보인 나라 중에는 르완다도 있다. 먼 길을 오신 이들을 위해 평가원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와 축산물이력제, 유통정보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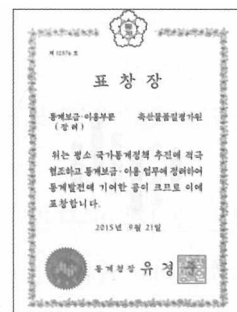


중국 CCTV의 축산물이력제 관련 보도(7.29.)

이렇듯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축산물이력제와 축평원의 축산 전문성은 가까운 중국에도 알려져 중국 국영 방송인 CCTV-2 경제채널에서 7월 축산물이력제와 축산 유통과 관련해 우리원을 취재해 본토 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자타공인! 공식적인 전문성 향상의 증거가 있다. 바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통계청과 한국행정학회 부터 상을 받은 것이다.

먼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2015년 통계개발 보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통계청장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은 것이다. eKAPePia를 통한 통계보급과 축산 능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가 통계개발보급 우수 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비전(vision)인 글로벌 No.1. 축산전문기관. 이쯤이면 실현의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꿰 봐도 좋지 않을까?

소통

기대 반 걱정 반으로 D-day를 손꼽던 '2015년 가치 경영을 위한 노사 한마음대회'가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취소됐다. 2014년 구제역으로 전 직원 행사인 사업평가 대회가 취소된 데 이어 2년째 전 직원이 모일 기회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자 아쉬움도 그만큼 커졌다.

하지만 2015년 축평원의 사내 소통은 대체적으로 '원활', 파란불이었다.



응, 너는 그러냐?...HAPPY! 가족의 발견(10.29.~30.)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노사 파트너십 향상을 위해 연중 개최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4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이라는 특색이 빛난 'Happy 가족의 발견'이 있다. 임직원 가족이 참여해 함께 힐링하며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처음에는 참가를 주저해 떠밀리듯 참가한 이도 있었지만, 행사 후에는 다들 '엄지 척'을 보냈다.

연말을 즐겁게 마무리 하게 한 노사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문화행사도 빼놓으면 섭섭하다. 2015년 우수 직원 표창에 이어진 자체 교육, 그리고 명시특강은 연말 바쁜 시간을 쪼개 참가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여기에 연말 사랑의 연탄 나눔처럼 노사 공동으로 실시했던 사회공헌 활동까지. 다채로운 활동들이 2015년을

축평원 안팎을 달궜다.

대의 소통으로는 2015년 처음으로 도입된 서포터즈가 '소통'이라는 단어의 중심에 선다.



서포터즈의 대형마트 홍보 활동(6.3.)

온라인 블로그 활동을 기반으로 한 이들은 그 존재 자체로도 '소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대형마트 홍보 활동이나 가두 홍보 등을 하며 일반 국민들과 축산전문기관인 우리원 사이의 문턱을 낮춰 주는 역할을 했다. 이들을 통해 퍼진 어려운 축산용어나 원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시각에서 편하게 바라본 축평원의 이야기들은 우리원이 소비자들과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물론, 축평원 직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올해 축평원은 대구 국제축산박람회나 대전 세계양봉대회 등 축산 관련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발로 뛰었다. 외부 컨설팅이나 교육도 다양하게 실시했다.



축평원 대표 스타 품평이, 서울역에서 빛나다

이 와중에 2015년 축평원 대내외 소통을 위해 홀로 열일한 이도 있다. 축평원 캐릭터다. 모 평가사가 모델이 됐다고 알려진 이 캐릭터는 올해 저작권을 확보하며 축평원 대표 캐릭터로서 새 생명을 얻었다. 기존에 임시로 축평원으로 불리다가 내부 네이밍 공모를 통해 품평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지난해 전광판 광고의 주인공이 되어 서울역 대형 스크란을 통해 그 매력을 뽐내기도 했다.

세종시로 이전한 현재의 축평원 본원 입구에는 이제 계단이 없다. 올해 대내외 소통을 위해 애쓴 노력들이, 그리고 소통에 대한 축평원의 생각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상징이라 볼 수 있겠다. 턱을 낮춘 축평원이 어떻게 국민결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지,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도전



이삿짐 싸다 찍은 한 컷. 군포에서의 마지막 기념사진

앞서 잠시 언급된 것처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5년 8월 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더는 군포시 용호1로 46번길 9(당동)가 아닌 축평원 본원의 새 주소다.

큰 환경 변화를 앞두고 걱정도 많았던 게 사실. 축평원 직원들은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짐을 싸고 풀고, 직접

쓰고 닦으며 새 출발을 앞두고 싱숭생숭했던 마음을 새로운 의지로 채웠다.



최고기 등급기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11.23.)

2015년의 '도전'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 있다. 11월 23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소도체 등급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다. 근내지방(마블링)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 속에 현행 소도체 등급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부 비판 여론이 목소리를 키워감에 따라 직접 맞서 아예 공식석상으로 얘기의 무대를 옮긴 것이다.

경대수 의원실 주최,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는 소도체 등급제와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축평원은 등급제와 근내지방에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국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등급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근내지방이나 적색육 소비와 관련한 이슈는 201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평원은 잘못된 정보가 우리 국민의 식생활과 축산업계 종사자들의 생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축산물 바로 알리기를 위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축평원**